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자

(하박국 1:1~17)

1.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자'
"때려치우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던 일을 완전히 그만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어감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려치우는 것은 단순히 완전히 멈추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려치우고자 할 때에는 마음에 불만과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탈진한 상태에서의 좌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때려치우는 것입니다.
때려치울 만한 상황 몇 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해서 나 자신의 저녁이 없는 회사생활을 때려치운다. 3년 동안 파리만 날리던 장사를 때려치울 것이다. 사람대접 못 받는 지옥 같은 결혼생활 때려치운다. 지긋지긋한 공무원시험 준비 버틸 수가 없어 때려치운다. 밀당에 지쳐서 연애를 때려치운다. 10년이 지나도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목회 때려치운다.
이렇듯 삶에서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때려치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때려치우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세상만사 새옹지마다. 고진감래이고 진인사대천명이니 낙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가족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제발 이런 종류의 충고나 위로를 때려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윗사람이랍시고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하

니 하는 일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일만하고 내 시간은 없습니다. 신나서 계획하고 시도했던 일이더라도 시간이 지나자 후회만 들 때도 있습니다. 아홉 번 잘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번 잘못하면 천지가 떠나갈 듯 욕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때려치워야 할 일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때려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애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조언해봅니다. 이 세상 일이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바로 때려치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한 세상을 때려치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때려치우게 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세상을 때려치우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적 의미에서 세상을 때려치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부모노릇하기가 힘들면 때려치워야 합니다. 매일 적자 보는 사업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때려치워야 합니다. 자녀의 일이 내 뜻대로 되거나 사업이 잘 돼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야 말로 큰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일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단 한 가지 선행되어야만 하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때려치우되 마음에서 때려치움이 우선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을 때려치우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직장에 대한 관심을 때려치워야 합니다. 10년 20년 참고 다녔으니 하루 이틀 더 유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때려치운 후에 다시 직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먼저 마음으로 세상을 때려치우고 나서 다시 세상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대체 마음으로 세상을 때려치운 후에 세상을 대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

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있었던 남 왕국 유다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미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남 왕국 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20년 남짓을 남겨둔 때였습니다. BC.612년으로부터 605년경에 기록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BC.612년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때이고, BC.605년은 앗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앞서 나훔 선지자가 앗수르의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국제적으로 암 덩어리와 같았던 앗수르는 실제로 망하게 됩니다.

한편 남 왕국 유다 또한 나라의 국운이 쇠하고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도외시되고 공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건드렸던 것은 바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그나마 당시의 우상숭배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 번성하고 형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4절을 보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남 왕국 유다에서 횡횡하는 악인의 번성과 형통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 대해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남 왕국 유다 전체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고 다급해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간구했는데 그나마 선한 자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하나님과 선민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참견이 필요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앗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여야가 서로의 정책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가 참견할 수 없는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기 싫다고 하셔서 일본을 통해 대한민국을 뒤흔들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기겁할 노

릇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간구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내일 살펴볼 2장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신약성경으로 가져오면 참 낯선 질문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괴로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며 한이 맺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에 나오는 기도와 3장에 나오는 구절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3장 16~19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간구와 비교하자면 심경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보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과는 달리 유다는 아예 멸망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는 환상을 보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3장에 가서는 없다는 말을 여섯 번 반복하고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말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유다가 10개 악하다면 바벨론은 20개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선민 나라의 10개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외부의 더 악한 자들을 동원하시겠다니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음을 얻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때려치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로 짠 기름, 밭의 곡식들, 소와 양들을 비롯한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고 이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을 형통으로 여기는 세상을 마음에서 때려치웠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돈 많이 버는 것, 서울대 입학, 대기업에 합격, 회사에서 승진 등을 성공이고 형통으로 여기는 삶을 때려치운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등진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많은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풍성하게 짜냅니다. 밭에는 곡식이 많고 소와 양을 더 많이 기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서 세상 때려치움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바꾸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야 기쁘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을 많이 짤 수 있어야 기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때려치울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친김에 마음에서 때려치워야 합니다. 그 대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3장 19절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했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는 곧 한때는 이것들이 있기만을 바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밭의 소출과 양과 소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후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명이 수행되는 세상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너무도 이상한 곳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풍성한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생각은 얼핏 당연해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성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상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이상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넣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 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때려치워야만 하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암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나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아도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에야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듭니다. 빨리 이 세상을 뜨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살하거나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뜨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도 모르고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인도

해 오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떠올려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손을 대면 댈수록 되는 일이 없고, 걱정 근심 말고는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무성함,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은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밭의 소출이 많고 소와 양이 많은 것을 형통으로 여기는 이상한 나라를 이제는 때려치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들어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사명과 복지와 감사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삶의 형편이 때려치우고 싶을 지경이 되었다면 조금만 더 은총과 축복을 더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의 삶 자체를 마음에서 때려치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이제 내가 때려치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과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살아지는 복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